

# 요도염(尿道炎)의 원인과 증상

김 세 경

<고려 의대 교수>

## 요도염의 원인

요도염은 서기전의 옛날서부터 문헌에 기술된 바 있는 오래된 병 가운데 하나로써 항생제의 발견 이후 그 발생율이 다소 적어졌다가 근래에 와서 항균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균주가 많아지므로 인해 치료는 더욱 곤란해 진 병이다.

요도염의 원인으로서에는 임균성요도염 즉 임질과 비임균성요도염이 있고 그 외에 결핵균, 원충(트리코모나스) 알러지성질환, 비누등 화학제로 인해 생기는 수도 있으며 전신질환때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 요도염의 증상

□ 급성임균성요도염(急性淋菌性尿道炎):

임질은 여자와 남자 함께 비노기계 특히 요도 점막에 일차적으로 임균에 의하여 발생하는 염증으로 거의 성교

로 인해서 감염을 받게 되며 어린이들에게서는 농이 묻은 옷이나 손에 의해 임균성 안질환, 임균성 항문직장염 또는 임균성 질염 및 임균성 요도염 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다.

임질은 또한 혈행을 타고 각장기로 번져 관절염, 흉체염, 심내막염 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 임균은 신형(腎形)의 쌍구균이며 그람음성균으로 현미경하에서 백혈구 내외에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3~10일의 잠복기를 지난뒤 요도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잠복기는 환자의 저항과 침입한 균의 독성과 그 양에 따라 다르다. 때로는 잠복기가 2주 이상 되는 때도 드물게는 있다고 한다. 이것은 대개 재감염인 예에서 많이 보는데 이와 반대로 잠복기가 지극히 짧은 때도 있는데 이것은 이미 가지고 있던 무증상 임질이 재발된 경우가 많다. 인체는

임질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면역성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임질에 감염될 수 있고 또 여러번 걸릴 수도 있다.

증상으로서는 배농이 있기전에 의뇨도구에 소양감,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뒤이어 배뇨시 작열감이 일어나고 점액 혹은 점액농성배설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때 의뇨도구를 보면 발적 증창이 있고 배설물이 나온다. 시일이 좀더 경과하면 요도의 증창과 함께 농의 배출을 볼수가 있으며 배뇨시 동통이 심하고 또한 음경이 발기되면 동통이 일어난다. 이때 요도의 분비물을 도말염색으로 검사하면 다수의 백혈구 내외에 있는 그람음성 쌍구균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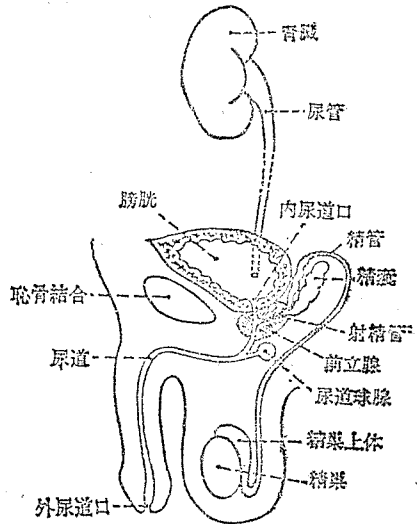
즉시 치료를 하지 않거나 분층분하게 치료를 하였을 경우 전부(前部)요도에서 후부요도로 염증이 파급되는 것이다. 후부요도염의 병리적 변화는 전부요도염과 대동소이 하게 되며 방광경부, 삼각부, 전립선, 정구, 사정관에 염증이 파급되는 것이다. 전립선에는 선이 풍부하므로 이 선에 균이 침입하게 되면 많은 병소를 형성하여 만성화 하며 흔히 재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증상으로는 배뇨곤란, 주야간 빈뇨

요급, 요후중증, 혈뇨, 회음부동통등 후부요도자극증상이 생기게 되며 때로는 전립선염, 정낭염, 부고환염의 증상이 나타나는 수도 있는데 직장내 축진으로 종창되어 있으면서 온열감, 압통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신적인 증상으로는 피로와 권태감, 미열을 느낄 수 있다.

### □ 만성임균성 요도염(慢性淋菌性尿道炎)

이는 급성임균성 요도염으로 부터 치료를 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하였을때 이행되는 것으로 전부요도에 염증반응이 요도벽에 도서상으



<남성비뇨생식기>

로 국한해서 침윤을 일으켰거나 리터선(Littre 腺), 모르가그니와(Morgagni 窩)에 염증이 파급되어 이들 조직주위에 섬유증식이 생기고 그 개구가 열렸다, 막혔다 하는 까닭으로 지속되는 만성염증이다. 이것은 만성임균성 전부요도염이고 만성임균성후부요도염은 대체로 전립선 정낭의 감염이 합병 되었을 때에 그 증상이 오래 계속하는 것이다.

만성임균성 요도염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간간히 일어나는 경한 요도통 배뇨시 작열감, 요도소양감, 불쾌등이 있을 뿐이고 심한 요도통은 없다. 요도배설물은 점액성 혹은 수양배설물이고 그 양이 대단히 적고 주로 아침에 이와 같은 묽은 배설물을 볼 수가 있고 배설물의 건조로 인해서 의요도가 붙어 있는 정도이다. 소변은 대체로 맑거나 약간 혼탁한 중에 요사(尿絲)가 떠 있을 뿐이고 이것을 검경하면 정상수 이상의 백혈구와 임균을 발견하게 되는데 임균을 발견하기는 극히 어렵다. 만일 전립선이나 정낭에 만성염증이 합병되면 정낭의 분비물 중에서 임균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임균을 발견하지기는 어렵다.

## □ 비임균성 요도염(非淋菌性尿道炎)

비임균성 요도염은 임균이 아닌 다른 세균 즉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대장균, 디프테리아, 폐렴구균, 결핵균등의 세균과 기타 바이러스 원충등의 감염으로 생긴 요도염을 말한다.

통상이 비임균성요도염은 임균성요도염에서 임균은 다죽고 다른 잡균이 번식함으로써 이차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임질과 병행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성교로 여자의 질에 숨어 있는 세균 혹은 원충의 감염으로, 또는 구강내성교, 항문내성교(Sodomy) 후에 편도선 혹은 대변중에 있는 세균의 감염으로 생길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성교후에 오는 것은 질분비물의 자극으로 생기는 때도 있다.

이외에 전신적인 질환으로서 알러지성질환, 급성 류-마티즘, 이하선염, 성홍열, 장티브스, 이질 또는 인프렌자 경과중 점액성, 점액농성 분비물이 나타나고 이때 임균은 나타나지 않는다. 당뇨병 경과중 점액성 혹은 점액농성 분비물이 나타나는데 요중 당(糖)의 자극과 비병원균의 증가

로 인한 것이며 이때 요도에 소양감이 있게 된다.

매독의 경우 외요도구 또는 요도내에 생긴 경성하감으로 말미암아 장액성 또는 장액농성 요도분비물이 나타나며 경결을 요도부분에서 만질수 있고 분비물중에서 매독균을 볼 수 있게 된다.

트리코모나스의 요도내 기생으로 농성 요도분비물이 나타나고 때로는 구루포피염을 병발 하기도 한다.

요도진균증(곰팡이)때도 점액농성 요도분비물이 나타난다.

비노기계 결핵이 있는 경우 점액성 또는 점액농성 분비물이 나타나며 결핵균을 발견 할 수 있고 다른 균은 발견 안되는 것이 보통이다.

성교후에 오는 요도염의 원인균으로는 대장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과 기타장내 세균이 있다.

비노기계 질환중 속발하는 경우 즉 단성전립선염, 방광염, 신우신염, 수신증, 신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증이 있을 때도 점액성요도분비물이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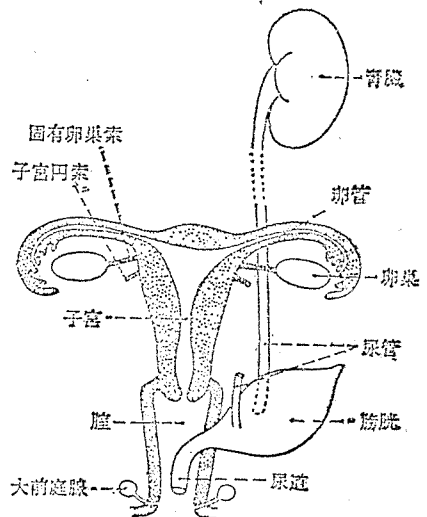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서 부적당한 살균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예로서 임질 치료시에 강한 요도세척액을 사

용 하였을 때 요도분비물이 장기간 지속한다.

또한 화학적 피임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특이체질에서 점액성 요도분비물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요도결막에 대한 기계적 및 화학적 손상은 화농성 감염을 유발시키며 부주의하고 빈번한 요도내 기계사용과 유치 카테터는 점액농성 내지 농성요도분비물을 나오게 한다.

요도내에 생긴 콘더롬(곤지름), 파



<여성비뇨생식기>

필로마(乳嘴腫)의 경우 점액성 혹은 점액농성 요도분비물이 나오게 되는데 요도경검사로서 이들 증양을 발견하게 되고 요도내 기계사용후에 출혈이 잘 생긴다. 기타 악성요도종양에서 요도분비물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다.

증상으로서는 대부분이 임균성요도염보다는 경하다. 점액성(粘液性) 혹은 수양(水樣)배설물이 나타나고 소변은 약간 혼탁하다. 또 요도소양감, 작열감, 불쾌감 등이 나타나고 배설물 또는 요검사로 임균을 발견 못하게 되고 기타 다른 균을 발견 하거나 발견치 못할 때도 있다. 면밀한 염색 혹은 배양으로 균을 발견치 못할때에는 항균제를 쓴 후 이거나, 무균성일 가능성이 많다. 원충으로 원인 된 때에는 트리코모나스감염이 중요한 것이다.

비임균성 요도염이 오래 계속하면 요도벽에 섬유증식이 일어나게 되고 리터선, 모르가그니와에 염증이 과급되어 병소를 이루고 있으면서 어떠한 치료에도 저항을 나타 내게 되며 치유후에 자주 재발을 하게 되는 것이다.

#### □ 여성요도염(女性尿道炎)

여자요도는 길이가 2~3 cm 로 짧고 요도벽에 남자의 리-터선 모르가그니와 전립선등에 해당하는 많은 선이 개구하고 있어 일단 염증이 발생하면 장기화할 수 있고 재발이 잘되며 방광염을 비롯하여 상행성으로 신우신염까지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요도는 질 항문과 인접하여 있어 그 분비물로 오염되기 쉬우며 여인의 요도는 성교 분만등으로 외상을 받기 쉽고 임신 월경등으로 그상피에 변화가 잘 생긴다.

요도염은 21~40세 사이와 폐경기(閉經期) 이후에 많고 그 이하 연령층에는 적다.

원인균으로서는 임균을 비롯하여 전자에 이야기 한 여러가지 세균을 들 수 있으며 목욕할 때 비누물 같은 것으로 인해서 발생 할 수도 있다. 또 한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젠(Estrogen) 부족으로 요도에 염증이 흔히 나타 날 수 있는데 이를 노인성 요도염이라고 한다.

증상으로서는 급성요도염의 경우 빈뇨 배뇨통이 있게 되며 만성염증에서는 요도의 협착으로 요선이 가늘

어 지고 연노 배노곤란이 있게 된다.

그러나 증상에 비해서 요중소전은 비교적 경미한 때가 많은데 급성기에는 농노 혈노등을 호소하나 만성형에서는 소변이 일반적으로 맑으며 약간 노사가 떠있을 뿐이다. 그리고 장기화된 만성염증의 경우 방광경부에 가늘고 긴 포립(polyp)들이 잘 생기는

데 이때도 포립의 자극으로 빈노, 배노통, 농노, 배노말혈노를 나타내며 개중에는 하복통, 요통, 두통등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병원 비노기과에 래원한 여자 환자 가운데 대부분이 요도에 포립이 있는 것을 방광경 검사로 확인 할 수 있었다.

